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7,390.1	18.3	125,000	-23	-3.7	-10.9	30.3	87.1	41.8	0.6	0.6	0.7	1.4
현대로보티스	6,701.9	21.4	411,500	0.2	-4.7	7.3	8.0	5.5	4.6	0.7	0.6	14.1	14.7
현대미心底	1,009.4	7.0	98,900	-1.6	-12.9	-13.6	-13.2	9.4	8.2	0.8	0.8	9.3	9.7
현대건설/기계	1,659.2	9.1	168,000	-3.2	-14.7	-0.6	-0.6	10.7	7.9	1.2	1.0	11.7	13.9
삼성중공업	3,455.4	18.5	8,860	-1.3	1.8	-29.1	20.9	55.9	27.7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2,426.4	5.3	22,750	0.7	17.3	23.6	63.7	9.6	8.6	0.5	0.5	5.6	6.0
현대미포조선	2,020.0	13.1	101,000	-1.5	-1.5	5.2	28.3	21.8	15.7	0.8	0.7	3.6	4.8
한진중공업	360.6	6.5	3,400	-2.0	-4.1	-7.6	2.7	68.4	17.1	0.5	0.5	0.7	2.8
현대엘리베이터	1,416.4	36.3	57,500	1.1	3.4	8.7	5.7	10.1	9.9	14	12	14.6	13.3
두산밥캣	3,508.7	27.4	35,000	-1.4	-1.3	6.5	-2.2	12.8	12.1	1.0	0.9	7.4	7.6
현대로템	1,283.5	25.4	15,100	-0.3	-10.4	-19.0	-19.5	19.5	13.3	0.9	0.8	4.5	6.3
하이록코리아	327.4	48.0	24,050	-4.6	-5.9	-5.7	6.9	10.9	10.0	0.9	0.9	8.8	9.0
성광밴드	361.8	15.9	12,650	0.0	11.9	31.0	26.8	1,118.2	454	0.8	0.8	0.1	1.8
태광	389.6	16.6	14,700	2.8	4.6	42.6	22.0	87.8	42.9	0.9	0.9	1.0	2.1
두산중공업	1,591.6	9.6	14,950	-1.3	-3.2	-6.0	-2.6	11.5	9.3	0.5	0.5	4.3	5.2
두산인프라코어	2,050.2	13.2	9,850	-4.4	-10.0	11.2	13.3	8.7	7.7	1.0	0.9	11.5	11.5
두산엔진	277.7	3.9	3,995	-1.2	-4.3	-19.9	8.4	-110.7	87.8	0.5	0.5	-0.5	0.6
한국항공우주산업	4,868.9	17.4	49,950	-0.1	-6.5	-3.2	5.3	33.6	24.1	3.7	3.3	11.2	14.1
한화테크윈	1,480.7	13.9	28,150	-1.1	-14.8	-21.7	-20.8	17.3	12.6	0.6	0.6	3.6	4.7
LIG넥스원	1,086.8	10.4	49,400	0.0	-8.7	-16.1	-17.4	19.5	13.8	1.7	1.5	8.7	11.4
태웅	430.2	3.0	21,500	-4.0	-2.1	22.9	11.1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39.6	5.1	8,880	1.8	29.4	86.2	75.8	-370.0	525	2.6	2.5	-0.7	5.0
한국카본	292.3	16.4	6,650	-2.6	0.0	19.9	24.1	49.6	34.4	0.9	0.9	1.8	2.6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CMA CGM set to go for gas with \$1.7bn order for up to 12 newbuilds

CMA CGM은 현대중공업에 2020년 인도를 목표로 1.4만TEU급 컨테이너선 6+6척을 발주했고, 잠재적 총 계약가는 17억달러로 알려짐. 선박은 Dual-fuel 옵션으로 건조될 예정으로 알려짐. 일반적인 1.4만TEU급 컨테이너선 선가는 척당 1.15억달러이나, LNG 추진방식 장착으로 1.3억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알려짐. 현대중공업은 작년 9월 CMA CGM의 2.2만TEU급 컨테이너선 9척을 중국 조선소 때문에 수주에 실패했으나, 이번에는 중국 조선사 2개 업체와 경쟁에서 이겼다고 알려짐. CMA CGM은 Total에서 선박주선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LNG를 공급받을 계획이며, 재충전 없이 아시아와 유럽을 왕복할 수 있다고 알려짐. (TradeWinds)

Sinokor locks away four VLCC newbuildings to GS Caltex

장금상선(Sinokor)은 GS칼텍스와 10년간 장기운송계약을 맺고, 2020년 인도예정으로 현대중공업에 29.9만DWT급 VLCC 2척을 추가로 발주했다고 알려짐. 작년 11월 장금상선은 현대중공업에 동형선 2척을 발주했고, 인도는 2019년 인도예정임. 선가는 척당 8,300만달러로 예상됨. (TradeWinds)

Nissen Kaiun turns to South Korea for feeder boxship order

일본 Nissen Kaiun은 몇 년 사이 최초로 국지 조선소가 아닌 한국에 Feeder 컨테이너선을 발주함. Nissen은 현대미포조선에 19년 말 인도목표로 1,800TEU급 컨테이너선 4척을 발주했고, 한국선사 KMTC에 10년간 용선될 것으로 알려짐. 선가는 척당 2천만달러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예상됨. (TradeWinds)

Borr Drilling scoops Paragon rig fleet

시추업체 Borr Drilling은 선대를 확장하기 위해 2.3억달러를 투자해 Paragon Offshore를 인수할 예정으로 알려짐. Paragon은 32개의 시추장비를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짐. Borr Drilling은 이번 거래로 선대를 확장하고, 프리미엄 Jack-up 부문에서 Consolidation을 통해 북해 시추시황 회복을 전망함. (Upstream)

현대重, 5,800만달러 규모 플랜트 설비 수주

현대중공업이 최근 나이지리아 당고테(DORC)에서 대형 LPG 저장탱크 15기에 대한 수주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짐. 이번 수주는 지난 16년에 당고테에서 수주한 중질유분해설비(RFCC)의 후속 공사로 알려짐. 계약금은 5,800만달러(약 630억원)로, 5월부터 제작해 2019년 4월 납품할 계획임. (뉴스1)

Flex closes in on order for pair of LNG newbuildings

Flex LNG는 현대중공업에 2+2척의 LNG선 발주를 위해 적어도 7.2억달러를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짐. 업계에서는 수주가 확정됐다고 보는 반면, 일부는 LOI(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보고 있음. Flex는 프로젝트가 논의됐지만 확정은 아니라고 밝혔고, 일부에선 대우조선해양과 협상 중으로 알려짐. (TradeWinds)

日조선 新3국지 시대 진입

일본 조선업계가 1) 미쓰비시중공업, 이마바리, 오시마, 나무라조선 등, 2) NKK, 히타치조선, IHI 조선 등이 합쳐진 JMU(Japan Marine United), 3) 미쓰이조선과 츄네이시선박 간 동맹으로 재편됐다고 알려짐. 아직 가와사키중공업과 기타 중형조선사는 재편되지 않았으나, 큰 흐름은 3강 체제로 유지될 전망임. (선박뉴스)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2월 2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2018년 2월 2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0%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2월 2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